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124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요한 8,1-11)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눕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 ※‘5분 신앙상식’을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요한 8,1-11

어떤 본당에 성가대원 한 분이 음치였다.

30명 성가대원이 아무리 잘 부르려 해도 이 음치 성가대원 때문에 성가를 망치기가 일쑤였다. 그래서 단장이 여러 차례 성가대를 관두라고 충고를 했지만 성가대원은 듣지 않고 성가찬송 하는 것을 좋아했다. 단장은 할 수 없어 본당 신부에게 음치 단원을 성가대에서 관두게 해 달라고 부탁드렸다. 본당 신부는 음치 단원을 불러 놓고 30명의 성가대를 위해 성가대를 그만 둘 수 없느냐고 말을 했다.

그랬더니 음치성가대원이 한 마디 했다. “신부님 저 때문에 30명이 힘들지만 신부님 때문에는 3천명이 힘듭니다. 신부님도 관두실 생각 없으십니까!”

우리는 가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없어져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돌을 던질 자격은 없다. 오로지 하느님만이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양 손에 돌을 들고 어디 던질 놈이 없는가? 하고 눈이 벌게 가지고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다.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걸렸다. 그것도 현장에서 파렴치한 모습으로 걸렸다. 이 여인은 빠져 나갈 길도, 변명할 길도 없이 순식간에 사람들의 손에 머리채를 잡히어 성전으로 끌려갔다. 여인은 지푸라기도 붙잡고 싶었고 자신이 간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싶었겠지만 탕녀라며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신을 쳐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 감히 변명할 용기가 없었다. 바리사이파 사람이나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르는 죄를 이 여인에게 다 덮어 속죄양으로 삼아 돌로 쳐 죽이려 했다. 아울러 기왕이면 자신들의 부끄러운 면을 지적하는 예수라는 사람도 함께 몰아매서 죽이려 했다. 성경의 주인공인 바리사이와 간음한 여인 사이에 우리는 간음한 여인도 되었다가 바리사이도 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되어야 하는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도 돌을 던지겠다는 이들도 다 용서하신다. 어느 누구도 벌하지 않으신다.

교회 안에서 누가 조금만 실수를 할라치면 “잘나지도 못한 게 잘난 체 하더니 꼴좋다!”는 식으로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붙는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날카로운 비난보다는 너그러운 용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용서의 지혜를 주님은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은 사람은 비난도 하지 않는다. 강박하고 죄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만이 날카로운 비난과 용서 없는 처단을 내린다. 이 사순절을 마감해 가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한다.

예수님이 왜 저 십자가에 저렇게 힘겹게 매달리셨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빼앗아 그 죄들을 쳐 없애 버리고 우리들 마음 안에는 평화와 사랑과 용서만이 머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미움을, 증오를, 이기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는 않는가?

(수원교구 3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코헬렛의 간략한 소개”

5분 신앙상식

코헬렛의 간추린 소개

저자

무명의 현인이 “다윗의 아들로써 예루살렘의 임금인 코헬렛(=설교자?=솔로몬)”의 이름으로.

집필 시기

기원전 3세기경.

집필 형식

(다른 지혜문학서들에서도 비슷하지만) 저자는 어떤 명확한 틀이나 논리적 구조에 따라 자기의 사고를 전개해 나가지 않고, 생각이 오가는 중에 자유로이 자신의 중심 주제를 개진합니다.

집필 목적

저자는 전통적 지혜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독립적인 사상가였습니다. 인간은 오직 자기의 경험과 사고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비판적 안목을 소유한 그에게는, 인생과 세상이 전통적 가르침처럼 그렇게 분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살이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 삶인지를 가르치고자 합니다.

집필 내용

비판적이고 탐구적이며 철학적인 코헬렛의 결론은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 오직 하느님만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허무로다”함은 결국 자기의 무지와 무능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에 귀결됩니다. 이 경외심 속에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기꺼이 누리기를 가르칩니다.

공지사항

-2010년 사순절 신앙 생활표를 잘 실천합시다.

-3월 19일은 한국 교회의 공동 수호자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입니다. 일생 존경과 신의로 성가정을 지킨 성 요셉의 일생을 묵상합시다.

다음 달 성경말씀

요한 21,1-19

“내 양들을 돌보아라...나를 따라라”

*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양’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양들을 돌보기 위한 나의 노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 서로 나누어 봅시다.

소공동체 기도문

소공동체가

○ 하느님 아버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 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엘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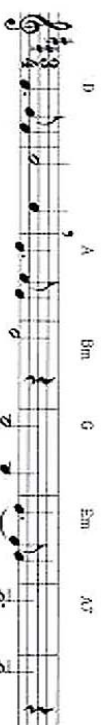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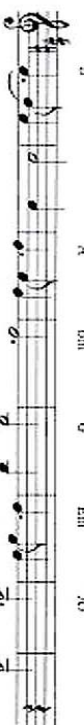
가도하며...
저서 원 정 수
적목 현 정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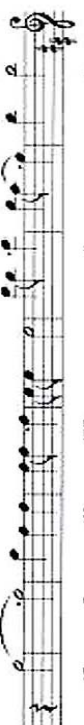
하느님 백 성 자녀들 아! 모 두 모 - 여 라 -



우 리 의 삶은 주 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일렬 무 아 -



중 - 기 하 고 공 사화 자 세 상 모 두에 게 -



마 음 모 - 아 기도하 고 함께 나 가져 천국 으 로 -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 구 역 반공동 체 -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 체 -